

News

“카카오·토스, 긴장해”... 은행 ‘금융 슈퍼앱’ 힘 받는다

머니S

금융위원회, 은행이 하나의 종합금융앱 플랫폼으로 은행·보험·증권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조성하겠다 발표
금융업권별 경영·부수업무 범위 확대 검토 및 신사업 규제샌드박스 활용... 오픈파이낸스 활용방안 추진... 빅테크발 잠재 리스크 점검 및 감독 관리방안 검토

고금리 비중 높아진 가계대출...앞으로가 더 문제

비즈니스워치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10월 기준 금리수준에 따른 가계대출 비중 가운데 금리 3% 이상인 구간 비중 전달보다 늘어나... 풍선효과 등 발생 가능성도 우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현재 은행들의 부실채권 비율 등이 건전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어 당장에는 큰 문제 없어... 업계는 투기수요 등 대출 활용하는 경우 줄어 수월해질 것 예상

공적 보증 축소...내년 전세대출 거절 늘어났다

뉴시스

금융위원회, 2022년 금융정책 추진 방향 업무보고를 통해 전세대출의 공적보증 과잉의존을 축소하고 리스크 공유 유도 방안 검토한다고 발표
일각에서는 내년부터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본격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다만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과 서민금융상품에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보완 언급

시중銀 소호대출 300조 사상최대...상환유예 종료 땐 부실 위험 커져

서울경제

5대 은행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잔액은 21일 기준 299조 4,159억원으로 최대치 기록... 연말 300조원 돌파 확실시
내년 3월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악성 부채 터질 우려 존재... 신보에 따르면 코로나발 부실 예상 금액 2,201억원, 상승폭 0.4%p 전망

금융당국, 달려보험 판매규제 강화...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뉴시스

금융위원회,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 마련... 외화보험에 대해 동일상품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변액 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키로...
적합성·적정성 원칙 추가 적용... 보험사 판매책임 강화, 모집수수료 한도 합리적 조정 등 추진... 필요한 법령 및 규정 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

연말 특수 없다...보험업계, 사회적 거리두기 ‘울상’

이코노믹리뷰

사회적 거리두기 1월 2일까지 적용 중... 대면영업 위축 우려... 특히 12월은 대목 시즌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큰 상황
또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에 직면... 하반기 거리두기에 따른 이동량 감소 등의 효과 얻을지도 미지수

금융위 “자본시장특사경 강화...증권사엔 자본확충요구제 도입”

아시아투데이

내년부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권한 강화 및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한 소수점 거래 적용
또한 증권사별 전산개발에 따라 소수점 여섯째 자리까지 거래 지원 예정... 투자자 중심의 판매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펀드 판매보수 체계 개편

핑 대신 닭 미 증권거래소, 중 대신 동남아·인도 공략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소들, 인도와 동남아시아 기업들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 가능성 타진... 미·중간 긴장 고조 속 중국 기업들의 출장장폐지가 거의 확실시 되어 새로운 수익원 찾는 중
중국 보험그룹 FWD가 미·중 양국 규제당국 경고 후 미 상장계획 접는 등 미국 IPO 계획 포기 기업 속출... 다만 아직 복잡한 자국 규정 등으로 해외 IPO 빈약한 현실

Compliance Notice

본 조서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서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